

◇성인에서의 우전외측 개흉술을 이용한 개심술  
 이상권, 이재원, 송현, 윤태진, 서동만, 송명근  
 울산대학교 서울중앙병원

**배경 및 목적** : 개심술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과 미관상 효과를 얻기 위해, 우전외측개흉으로 성인의 심방중격결손증과 판막질환의 수술을 시행하였다.

**방법** : 1989년부터 1998년 6월까지 시행된 우전외측 개흉술을 통한 16세 이상의 성인에서 44례의 개심술 결과를 검토하였다[심방중격 결손증 28례, 판막수술 16례 - 승모판 성형술이 8례, 승모판 치환술이 6례, 이와 동반된 삼첨판 성형술 7례, 치환술 1례, 삼첨판 재치환술이 1례 - 이중 재수술이 7례였다]. 피부절개는 중 쇄골선부터 전액와선까지 유방하주름을 따라 3인치 크기이고 이보다 더 연장 해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, 흉관도 절개선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삽입하여 창 상이 눈에 덜 띄게 하였다.

**결과** : 우전측방 개흉으로 심방중격 결손증의 수술에 소요된 시간은  $272 \pm 44$ 분[정중흉골개흉;  $292 \pm 41$ ], 판막질환에서는  $384 \pm 150$ 분[정중흉골개흉:  $362 \pm 25$ ]이었고, 심폐우회시간은 심방중격결손증에서  $66 \pm 25$ [정중흉골개흉  $85 \pm 24$ ,  $p < 0.05$ ]분과 판막수술에서  $164 \pm 98$ [정중 흉골개흉  $167 \pm 48$ ]분, 대동맥 차단시간은  $28 \pm 9$ [정중흉골개흉  $39 \pm 13$ ,  $p < 0.05$ ]분과  $95 \pm 56$ [정중흉골개흉  $94 \pm 12$ ]분이었다. 술후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 $38 \pm 27$ 시간,  $93 \pm 64$ 이었고, 심방중격결손증의 술후 출혈은  $508 \pm 734$ cc[정중흉골개흉  $521 \pm 340$ ], 판막수술의 경우  $818 \pm 620$ cc[정중흉골개흉  $784 \pm 455$ ]로서 술후 하루에 흉관을 제거할 수 있었다. 우전측방개흉으로 심방중격결손증의 수술시 심폐우회시간과 대동맥 차단시간이 정중흉골개흉의 경우보다 단축되었으며 [ $p < 0.05$ ], 그 외의 결과는 정중흉골개흉으로 수술한 환자군과 차이가 없다. 전례에서 사망은 없었고, 이 접근법과 관련한 이환은 없었다

**결론** : 우전외측개흉술은 부분적으로 흉골정중절개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다.

책임저자: 이재원 (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) 발표자: 이상권 (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)